

G.E. 레싱의 드라마 '헌자나탄 (Nathan der Weise)' 에 대한 기독교적 고찰

Christian Perspective on G.E. Lessing's drama
'Nathan der Weise'

주 경 식

1. 서론

독일 계몽주의 문학의 대표적 작가인 G.E. Lessing(1727-1781)은 시민적 문필가이자 18세기의 시민사회와 문학을 대표할 수 있는 작가이다.¹⁾

노골적으로 반기독교적 태도를 보이는 프랑스의 문학이나 철학과는 달리 18세기 독일의 정신계는 보다 덜 세속화되어 있었다. 후진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독일의 특수상황은 레싱의 작품과 활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아직도 보수적인 기독교가 지배세력으로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독일에서, 정치적 사회적 변혁을 꾀하려는 Lessing을 위시한 계몽주의자들에게 당대의 신학과의 대결은 반드시 거쳐가야 할 관문과도 같은 것이었다.

레스링은 자신이 신학자(Theolog)가 아니라 신학애호가(Liebhaber der Theologie)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신학적인 문제를 필생의 과제로 여기고 역점을 두었던 것이 분명하다.²⁾

그래서 그는 저술의 많은 부분과 최후의 10년을 거의 신학에만 바쳤던 것이다.

'헌자 나탄'은 그의 일련의 드라마 중에서 최후에 발표된 작품(1779년)이며 다른 어떤 작품보다 레싱의 종교관, 세계관, 역사철학이

잘 드러나 있다.

F. Schlegel은 '헌자 나탄'을 이해하는 사람이라야 레싱을 이해할 수 있다³⁾고 말하면서 이 작품이 레싱에 있어서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헌자 나탄'이 레싱의 신학적 입장표명에 치우쳐 신학을 넘어서서 본격적인 문학작품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⁴⁾ 그러나 인도주의(Humanität)와 관용(Toleranz)을 그린 위대한 작품의 하나로 레싱의 드라마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작품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기독교 세계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평가는 어떻게 다루어져야 할까?

상상의 세계를 표현하는 문학작품이 전적으로 <기독교적>인 가치구조를 가지는 것은 드문 일이다.⁵⁾ 따라서 문학적 상상의 세계를 인정하면서도 모든 형식의 인간적 상상을 지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다 승인할 수는 없다.⁶⁾

본고에서는 단편논쟁(Fragmentenstreit)을 중심으로 한 작품성립의 배경, 종교적 관용의 문제, 핵심적 내용인 반지주의(寓意), 유토피아관의 표현인 인류가족 등의 문제들에 관한 기존의 견해들에 기독교적 조명을 시도함으로써 이 작품의 바른 이해에 기여하고 기존의 평가에 있어서 올바른 점과 그릇된 점을 드러

내보고자 한다.

2. 작품성립의 배경

‘헌자 나탄’은 이신론(Deismus)적 입장에서 정통 기독교리를 공격한 라이마루스(Reimarus)의 유고 ‘신의 이성적 숭배자들을 위한 변론 Apologie oder Schutzschrift für die vernünftigen Verehrer Gottes’을 레싱이 볼펜뷔텔 도서관장으로서는 창간한 잡지 ‘역사와 문학 Beiträge zur Geschichte u. Literatur’에 단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야기된 목사 괴체(Goeze)와의 신학논쟁 -이른바 단편논쟁(Fragmenten Streit)이라 불리우는-을 배경으로 하여 생성되었다.

Christian Wolff의 사상적 후계자인 Reimarus는 이 유고에서 구약성서를 망상, 악덕, 착오, 기만적인 요소의 나열이며 신학성서도 모순적이고 전설적인 보고의 집합체로 이해했다.

그리고 처형된 예수의 시체는 제자들이 무덤에서 꺼내어 부활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레스링은 이러한 라이마루스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조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견해를 추가하여 출판했다.⁷⁾

종교개혁 이후 독일에서 일어난 최대의 논쟁이라는 이 단편논쟁을 일으킨 레싱의 의도는 무엇일까? 더군다나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지도 않는 저서를 출간해서 평지풍파를 일으켜 집중공격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의 의도는 논쟁 그 자체에 있다. 그는 당시 기독교의 경직된 사고구조를 탈피케 하여 생명력 있는 분위기로 전환시키려 시도할 것이다. 그래서 이단적인 교리를 공개적으로 소개해 논쟁을 가열시킴으로써 독자들의 ‘자율적인 사고(Selbstdenken)’를 유도하려 했다.

이러한 의도에는 개인적인 실리추구의 적법성 즉 교회가 전해주는 진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이성과 노력에 의해 진리를 찾아 검증해보려는 생각이 들어있다.

그것은 Lessing과 괴체 간의 논쟁에서 레싱을 진리추구(Suche)에, 괴체는 이미 알고 있는 진리의 전달(Vermittlung)에 각각 중점을 두었던 견해차에서 여실히 드러난다.⁸⁾

이는 교회가 진리의 어떠한 신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 찾아 깨닫게 하기보다는 마치 소유의 대상인 것처럼 완성품을 전달해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가르쳤기 때문이다.

한편 레싱은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며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진리를 찾는 진정한 노력에서 얻어진다고 생각했다. 이는 한편 계시된 진리의 기록인 성경을 상대화시키고 인간의 노력만을 부각시킴으로써 머지않아 성경과 하나님의 모든 부인해버리는 상황을 자초하게 된다. 레싱의 오류는 진리인식에 있어서 독단적인 태도를 고치려 하다가 진리 자체가 부인되는 상황을 초래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 있다.

3. 종교적 관용(Toleranz)

관용에 대한 논의는 18세기 계몽주의자들의 중대한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사회에 공존하는 여러 종교집단간의 관용에 대한 계몽주의자들의 논의에 레싱도 일찍부터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그의 청년기 희곡 가운데 ‘자유 신앙주의자 Der Freigeist’와 ‘유대인 Die Juden’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레싱은 당시 성행하던 작센희곡(Sächsische Komödie)의



필자소개

· 주경식 교수는 서울대 인문대 독문과를 졸업하고, 동(同)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강릉대학 독문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기독교대학설립 동역회 회원이다.

전형과는 정반대로 '유대인'에서 독일문학사상 최초로 모범적인 유대인을 내세우고, 그와 자신들이 저지른 범행을 특정 유대인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기독교인들을 대비시켜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터무니없는 편견에 기인하고 있음을 밝힌다.

낮선 여행자의 도움으로 위험에서 벗어난 남작은 생명의 은인인 유대인 여행자의 인격에 감화되어 개인적으로 유대민족에 대한 선입관을 벗어던진다. 개인 차원에서 기독교인과 유대인 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레싱은 사회차원의 화해는 아직 시기상조로 보았다. 그리하여 즐거리의 happy end로 암시되던 여행자와 남작의 딸 사이의 결혼이 성사되지 않는다.

이는 기독교인과 유대인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이 엄존했던 그 당시 현실의 반영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인에 대한 차별대우의 불합리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같이 소수 종파에 속한 사람들이 법적 보장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종파간의 대립과 반목을 해소하고 조화로운 사회질서를 이룩하고자 하는 것은 거의 모든 계몽주의자들의 목표였다.¹⁰⁾

그의 청년기 희극 '유대인'보다 20여년 후에 쓰여진 '현자 나탄' 역시 관용의 문제를 핵심적인 문제로 다룬다.

주인공 나탄은 부유한 유대인으로서 십자군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기독교, 회교, 유대교의 3대 계시종교가 가장 치열한 다툼을 벌이던 시공간에서 이 작품은 전개된다. 그는 동족으로부터 "현인 der Weise", "부자 der Riche"란 칭호로 불리우며 회교도 다야는 오히려 "선인 der Gute"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러한 호칭에 손색없는 행동을 보인다. 그의 지혜는 "의견의 가치를 검증하고 가짜를 진짜와 구별하는 능력"¹¹⁾에 있다.

그는 어느 한 미덕만을 강조해 그것과 반대되는 면을 경시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탄은 여러가지 인간적 자질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으며 그 자질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특히 나탄이 이지에 기울지 않고 지성과 감성이 그에게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그러한 조화로부터 "타인들에 대한 호의적인 이해", "인간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통찰력에 따라 행동하는 "지혜"가 나온다고 브뤼게만은 강조한다.¹²⁾

이러한 나탄의 지혜, 인간의 본성과 사물의 본질, 상황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편견 없는 인간애는 그러나 천부적인 것, 그냥 주어진 것도 아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에게 저지른 만행의 결과로 아내와 일곱 아들이 무참히 학살된 뒤에 그 절망의 체험 속에서 고통스럽게 체득된 것이다.

"때로는 신과 다투기도 하고 화도 내고 미쳐 날뛰기도 하고, 나와 이 세상을 저주하기도 하였으며, 기독교에 다시 화해할 수 없는 증오를 맹세했던"¹³⁾ 나탄이었지만 기독교인의 유아가 그에게 맡겨졌을 때 그것을 신의 뜻으로 알고 자기 아이들 대신 양육하기로 작정한다. 그것은 자기 마음 속에서 속삭이는 이성(Vernunft)의 목소리를 듣고 신의 뜻에 복종하기로 한 것이었다.

그래도 신은 존재하신다!

그것도 역시 신이 결정하신 일이었다. 자!
이제 내가 이미 오래전에 깨달은 바를 실천하라!

내가 하려고만 한다면, 실천이
깨닫기보다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일어나라!¹⁴⁾

이러한 고통을 경험하고 극복한 나탄이었기에 전체 드라마 속에서 이성과 실천적 윤리에 의해 자신을 이끌어 가게 한다.

당시 사회에서 멸시당하던 존재인 유대인이 관용의 전형적인 대표자로 나타난 반면 이 작품은 기독교인을 대표하는 대주교(Patriarch)를 가장 편협하고 모순된 사람으로 그리고 있다.

자우터마이스터는 기독교 교회가 소유의 공공화와 권력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며 자유 대신 지배를 앞세운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자의적인 거짓 논리를 세우려고 힘쓰며 계몽주의자들의 목표와는 달리 인간을 미성숙의 노예로 만든다고 말했다.¹⁵⁾

이러한 당시의 모순된 기독교 교회에 대해 개혁을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기반으로 자신의 영달을 꿈꾸는 대주교는 관용 정신에 입각한 살라딘Saladin의 신전 기사Tempelherr 사면에 대해 아전인수적인 자기중심적 주장을 하고 있다.

즉 "신이 위대하고 위대한 일을 위하여 당신을 붙잡아 두었다."¹⁶⁾ 라고 믿는 것이다.

이 위대한 일이란 휴전 후의 유리한 전황을 위해 적의 사정을 담은 편지를 영국의 왕인 리처드 왕에게 전하고 신전 기사의 생명의 은인인 살라딘을 죽이는 일을 말한다.

대주교는 이러한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비열한 행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는 독립된 이데올로기로 물화된 종교 도그마의 극단적인 대표자이다.¹⁷⁾

그러한 독단론자로서 대주교는 현세적 삶에서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 어린아이는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죽는 편이 것처럼 영원한 타락을 위해 구출되는 것 보다는 나으니까 말아야. 그 유대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제쳐놓고 참견을 한단 말인가? 하나님은 구하시려고 하시면 반드시 그 사람 없이도 구하실 수 있을꺼야.¹⁸⁾

기독교인의 유대인 박해 때문에 가족을 모두 잃고난 후 기독교인의 딸을 친자식처럼 양육한 나탄의 관용을 대주교는 이와같은 편견을 가지고 판단한다.

인간의 사심 없는 선행도 기독교라는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죄가 될 수 있다는 엄청난 편견에 사로잡힌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적 관용을 다루는 레싱의 시각은 다분히 지배적인 종교인 기독교의 모순을 신랄하게 공격하고 기독교의 영향력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대주교를 코믹하고 과장된 인물로 만들어 나탄과 대조적으로 묘사한데서도 이러한 점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레싱의 초점은 특정종교의 모순 그 자체가 아니라 종교 속에 감추어진 인간성에 있다. 당시로 보아선 획기적인 인물 설정(선한 유대인-악한 기독교인)에서 보여지는 레싱의 용기있는 태도는 거짓된 종교성으로 일관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의 편협한 위선을 드러내는데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4. 반지 우의(Ringparabel)

회교 지도자 살라딘은 궁정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누이동생 지타의 충고를 받아들여 나탄의 돈을 뉘아채기 위한 계책을 꾸민다. 소환된 나탄에게 살라딘은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던진다.

어떤 신앙이 어떤 계율이 가장 그대 마음에 들었소?¹⁹⁾

살라딘은 기독교도, 회교도, 유대인이 비록 서로 전쟁을 하고 있긴 하지만 한 개인이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믿는 것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다만 그러한 선택의 근거(Gründe)를 묻는다. “이로써 질문은 이론적, 신학적인 것에서 윤리적인 것으로 변한다.”²⁰⁾ 이 질문에 대해 레싱은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에 나오는 반지 우의를 들어 간접적으로 답변한다. 반지 우의는 레싱 자신에 의해 ‘현자 나탄’을 푸는 열쇠라고 불려진다.

Rohrmoser는 “‘현자 나탄’은 반지 비유에 맞추어 구성되어 있으며 외적으로는 맨중간인 3막 7장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반지 우의와 극의 즐거리와 관계는 이해하기 어려운 텍스트와 그것의 해석 또는 설명의 시도와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²¹⁾ 라고 말했다.

이처럼 반지 우의는 전체 드라마의 즐거리와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레싱은 ‘데카메론’의 ‘멜히세데히에 관한 이야기’를 그냥 차용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신의 세계관과 ‘현자 나탄’의 주제를 밝히는 대목을 추가하였다.

학자들의 연구도 반지 우의의 새로운 점과 부가된 점에 집중적으로 모아진다고 한다.²²⁾

레스링이 추가한 부분은 ‘반지’에 대한 것과 재판관의 도입이다.

‘데카메론’에서는 그 진귀한 반지를 물려받기만 하면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동시에 일족의 족장으로 존경을 받게 된다. 이에 반해 반지 우의에서는 “이 반지가 신비스러운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힘을 믿고 반지를 끼는 자를 신에게도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자로 만든다.”²³⁾ 반지는 저절로, 자동적으로 다시말하면 끼고 있기만 하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믿음(Zuversicht)을 가지고 그 반지를 끼는 사람에게만 영향력을 발휘한다.

반지가 아니라 반지에 대한 믿음이 문제가 된다. 즉, 종교이해에 있어서 “탈사물화(Entdinglichung)”²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3형제는 각각 아버지로부터 반지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상속자의 권리를 승계해야겠다고 주장하여 결국 법정으로까지 그 문제를 가져가게 된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재판관은 그들의 아버지가 원래의 반지와 똑같은 반지를 2개 더 만

들어 진짜 가짜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판결(Spruch)을 내릴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판결 대신 반지의 신비력이 나타나도록 도우라는 '충고'(Rat)를 그들에게 준다. 지혜로운 재판관은 각기 자기의 반지가 진짜임을 주장하는 형제들에게 그 반지가 가지고 있는 힘 즉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만드는 그 신비력으로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 왜냐하면 가짜 반지라면 결코 그 힘이 없을 것이니까 만일 세 사람이 모두 자신만을 사랑한다면 그들은 속임을 당한 사기꾼(Betrögene Betrieger)이다.

가짜 반지를 물려받았다는 점에서는 기만당했으나 그것을 진짜라고 주장하는 점에서는 사기꾼인 것이다.

그래서 재판관은 이 문제를 그대로 놓아두려고 하면서 이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각자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아버지의 깨끗한 사랑을 본받도록 노력하라. 자기 반지가 가진 신비력을 발휘하도록 너희들 모두가 경쟁하도록 해라. 온유한 마음이라든가, 진정한 화목이라든가, 선행이라든가, 신에 대한 진정한 충성 등을 가지고 그 신비력을 돕도록 해라. ²⁵⁾

어떤 반지/종교가 옳은지는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는다. 반지의 신비력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것은 먼 후일이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신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자신이 먼저 신 앞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객관적인 진리는 알 수 없지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는 분명해졌다.

이제 종교의 진리문제는 이론적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실천적 이성(Praktische Vernunft)의 영역에 맡겨진다. 다시 말해 기독교, 회교, 유대교인들이 각기 자기의 계시종교만을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종교의 교인들을 박해, 비방해서는 안되고 각기 서로 관용하고 사랑을 실천하면 언젠가는 도덕적 입장에 의해 진리가 밝혀질 것이다.

참된 종교에 대해 질문을 던졌던 살라딘은 나탄의 답변을 듣고 이제 도리어 윤리적 실천의 요청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당황하게 된다.

이는 진리를 마치 "금화 Münze"와 같이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제 진리를 추구하는 인간의 노력으로 진리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다.

나탄의 이러한 주장은 바로 작가 자신의 종교관을 잘 말해준다. 레싱의 종교관을 잘 알기 위해서는 먼저 레싱의 사고방식에 대해 살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자 나탄'의 무대는 중세 십자군원정 시기의 예루살렘이다. 관용과 사랑의 실천에 실패함으로써 종교 특히 기독교 정신과는 전혀 관계 없는 대량 살상이 벌어진 때이다. 물론 중세라는 무대를 설정한 이유는 당대 독일의 현실과 그 문제, 해결책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키고자 함이다.

레싱은 일반적으로 문학이론이든지 신학이론이든지 확고한 체계를 세우려 하기보다는 현안으로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만 해결을 시도하기 때문에 때때로는 모순될 정도로 서로 상반된 주장이 나타나기도 한다.

종교적 독선에 의해 벌어진 비극 앞에서 그가 취한 태도는 가장 합당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생명력을 잃고 화석화된 고리만을 주장하는 경직된 사고에 대해 레싱의 도전은 큰 충격과 함께 자성케 하는 일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십자군 전쟁을 가져온 종교적 독선이 반드시 진리임을 주장하는 종교의 절대성요구(Absolutheitsanspruch) 때문일까?

레싱 자신은 각 종교의 독특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기독교에서 만물의 창조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절대성이 배제된다면 이는 기독교의 다른 종교와의 구별성과 기독교의 독특성이 유지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레싱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판단의 근거는 당대 계몽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성이다. 진리는 인간 밖에, 다시말하면 인간이 아닌 어떤 인격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으며 진리를 향한 인간의 진실한 노력이 결국 진리를 입증하고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맹신 즉 인본주의에 근거하고 있으며 종교들간의 관용을 위해 종교 자체가 무시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5. 인류가족(Menschheitsgeschlecht) - 유토피아

이 드라마는 각 종교의 대표자들이 사실은 피를 나눈 친척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고 서로 부둥켜 안는 감동적인 장면으로 끝난다. ²⁶⁾

그야말로 유토피아 바로 그것을 아름답게 형상화해낸 것이다.

레싱은 이러한 혈연관계와 관련된 사건들을 드라마 개막 이전에 두고 분석적인 드라마 기법으로 하나하나 베일을 벗기면서 마지막 장면에서 전모를 드러내 보인다.

유대인 부모 밑에서 양녀로 자라난 레하와 십자군 전쟁에 참가해 포로가 되었다가 처형 직전 살라딘에 의해 사면된 신전 기사가 친남매이며 그들은 행방불명된 살라딘의 동생과 독일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임이 밝혀진다.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처해있으며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여러 종파에 속한 사람들이 한 가족이라는 동화적 결말은 온 인류가 한 가족임을 상징한다.

작품 전체에 걸쳐 동화적인 요소가 많이 발견되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반지 우의는 한 편의 동화라고 부를 수도 있다.

나탄은 자신의 반지우의를 “동화 Märchen”, “이야기Geschichtchen” 라 부르며 “아주 먼 옛날 동방에 한 사람이 살았었다 Vor grauen Jahren lebt’ ein Mann in Osten” 라는 반지우의의 서두도 전형적인 동화의 서두와 유사하다. 또한 나탄은 거의 완전무결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어서 레싱이 < 함부르크 연극평 Hamburgische Dramaturgie > 제 75편에서 희곡의 등장인물의 조건으로 요구한 “생각과 정신이 우리와 같은 mit uns von gleichem Schrot und Korne”²⁷⁾ 사람이라기보다 동화속에 등장하는 인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하다. 그리고 작품전체에 산재한 희극적 요소들과 명량한 분위기에 의해 예견되는 희극적인 결말 역시 동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세계에서도 극복될 수 없는 문제들이 이러한 명량하고 동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가볍게 해결된다.²⁸⁾

동화의 세계는 현실세계가 아니다. 인류가 한 가족이라는 ‘현자 나탄’의 유토피아는 그러므로 현실이 아니라 이상이다. 레싱은 현실과 이상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괴리를 극복하고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인간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 레싱에 의해 그려진 유토피아 세계는 계몽주의 사상가들에 의해 흔히 도입되는 천국 모티브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²⁹⁾ 그들은 천국을 유토피아적 몽상으로서가 아니라 명백히 성취가능한 확실한 미래로 제시하는데 비해 레

싱은 현실적 실현가능성을 그렇게 신뢰하지는 못하고 있다.³⁰⁾

그러나 그 이상, 즉 유토피아가 성경이 말하듯이 신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을 실천하는 인간의 성실한 노력에 의해 지상에 점진적으로 건설될 것이라는 사실은 확고하게 믿고 있다.

6. 결론

레싱의 공격을 받는 기독교는 분명히 성경을 유일한 기초로 하는 복음적인 기독교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현자 나탄’에서 기독교의 대표자인 대주교가 조소의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시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원상을 회복하도록 돕는다는 면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싱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보다는 인간의 이성적 통찰력과 비판적 창의성을 더 깊이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믿는 기독교와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이라는 틀에 맞추어진 기독교와 하나님이다.

따라서 그 믿음은 자신을 믿는 믿음, 이성적 능력을 믿는 믿음이며 다음 단계에서 기독교와 하나님은 다른 무엇으로 대체되어도 상관 없는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격하된다. 레싱의 일차적 관심사는 신학적 문제이었지만 그것은 결국 닫혀있는 현실의 정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하지만 레싱은 어쩌면 부차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문제를 그려치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 아닐까?

이상향을 실현하기 위해 관용과 사랑의 실천을 호소하는 그의 요청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을 상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위치시킨 그와같은 노력이 200년이 지난 오늘날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우리가 명백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

- 1) Horst Steinmetz : Gotthold Ephraim Lessing. in : Deutsche Dichter des 18. Jahrhunderts. hrsg. v. Benno von Wiese. Berlin 1977. S.22.
- 2) Wilfried Barner u. Gunter Grimm(hrsg.) : Lessing, Epoche-Werk-Wirkung München 1975, S.248.
- 3) Friedrich Schlegel : Über Lessing. in : G. E. Lessing, hrsg. v. Gerhard u. Sibylle Bauer. Darmstadt 1968. S.27.
- 4) Karl S.Guthke : G. E. Lessing, Sammlung Metzler, Stuttgart 1973. S.62f.
- 5) Leland Ryken(최종수 역) : 상상의 승리, 서울 1982. S.125.
- 6) a. a. O., S.122.
- 7) 당시 신학계에서는 그러한 주장이 전혀 새로운 이론은 아니었다. 그 내용보다 그것을 출판했다는 사실이 충격을 주었던 것이다.
- 8) W. Barner u. G. Grimm (hrsg.) : a. a. O., S.269.
- 9) 윤도중 : Die Utopie in Lessings < Nathan der Weise >, 한국 독어독문학회 연례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1990. S.2.
- 10) W. Barner u. G. Grimm (hrsg.) : a. a. O. S.279.
- 11) J. A. Bizet : Die Weisheit Nathans, in : G. E. Lessing, hrsg. v. G. und S. Bauer, Darmstadt 1969. S.307.
- 12) Vgl. F. Brüggemann : Die Weisheit in Lessings "Nathan". in : a. a. O., S.80.
- 13) G. E. Lessing : Nathan der Weise, München 1979. (Goldmann Klassiker) 4막 7장. S.130. 이하 작품 인용은 막, 장, 페이지만 밝히겠음.
- 14) a. a. O., S.130f.
- 15) Gert Sautermeister : Nathan der Weise, in : Hauptwerke der deutschen Literatur. hrsg. v. Manfred Kluge u. Rudolf Radler. München 1974. S.142.
- 16) 1막 5장, S.32.
- 17) Karl Eibl : Nathan der Weise. in : Deutsche Dramen, hrsg. v. Harro Müller-Michaels, Bd. 1. Athenäum 1981. S.23.
- 18) 4막 2장, S.111.
- 19) 3막 5장, S.85.
- 20) W. Barner u. G. Grimm (hrsg.) : a. a. O., S.289.
- 21) Günther Rohrmoser : Lessing. Nathan der Weise. in: Das deutsche Drama. hrsg. v. Benno von Wiese, Bd. 1. Düsseldorf 1958. S.117.
- 22) K. S. Guthke : a. a. O., S.63.
- 23) 3막 7장, S.63.
- 24) G. Rohrmoser : a. a. O., S.123.
- 25) 3막 7장, S.91.
- 26) 5막 마지막 장, S.164.
"Unter stummer Wiederholung allseitiger Umarmungen fällt der Vorhang"
- 27) G.E.Lessing : Hamburgische Dramaturgie, Stuttgart 1978, S.295.
- 28) W. Barner u. G. Grimm (hrsg.) : a. a. O., S.
- 29) Bob Goudzwaard (김병연 역) : 자본주의와 진보사상, 서울 1989. S.87.

30) 그러나 레싱은 계몽주의자로서 기본적으로는 그 시대의 흐름인 낙관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신의 섭리 속에서 신의 계획에 따라 완성을 향해 점진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었다.
 <인류의 교육Die erziehung des Menschengeschlechts> 85장에 레싱의 그러한 신념이 나타나 있다. 그 밖에 <에른스트와 팔크. 프리메이슨 비밀결사단원을 위한 대화Ernst und Falk. Gespräche für Freimaurer> 그리고 <현자 나탄>에서도 그러한 신념이 밀바닥에 흐르고 있다.

- 10) Bob Goudzwaard(김병연 역) : 자본주의와 진보사상, 서울 1989.
- 11) Leland Ryken (최종수 역): 상상의 승리, 서울 1982.
- 12) 윤도중 : Die Utopie in Lessings<Nathan der Wiese>. 한국 독어독문학회 연례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1990.

참고문헌

- 1) G.E.Lessing : Nathan der Weise, Munchen 1979. (Goldmann Klassiker).
- 2) G.E.Lessing : Hamburgische Dramaturgie, Stuttgart 1978.
- 3) H. Steinmetz : G. E. Lessing, in : Deutsche Dichter des 18. Jahrhunderts. hrsg. v. Benno von Wiese. Berlin 1977.
- 4) Wilfried Barner und Gunter Grimm(hrsg.) : Lessing, Epoche-Werk-Wirkung, München 1975.
- 5) Gerhard u. Sibylle Bauer (hrsg.) : G.E. Lessing. Darmstadt 1968.
- 6) Karl S Guthke : G.E.Lessing, Stuttgart 1973.
- 7) Manfred Kluge u. Rudolf Radler (hrsg.) : Hauptwerke der deutschen Literatur. München 1974.
- 8) Karl Eibl : Nathan der Weise. in : Deutsche Dramen, hrsg. v. H. Müller-Michaels, Bd.1.Athenäum 1981.
- 9) Günther Rohrmoser : Lessing, Nathan der Weise. in : Das deutsche Drama, hrsg. v. Benno von Wiese. Bd.1.Düsseldorf 1958.